

濁流清論

제60호 2020년 7월 14일(화)

발행인: 김 상 배 / 편집: 편집위원회

< 알려 드립니다 >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탁류청론은 아주대학교 교수님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교수님들의 원고는 교수회 공식 이메일(ajoufaculty@ajou.ac.kr)로 보내주십시오.

탁류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위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u>더불어 푸른 솔밭에서</u> “여기 적힌 먹빛이...”	1
<u>특집</u> 코로나19 탁류청론 좌담회	4
<u>소통과 담론</u> 정년퇴임을 앞둔 교수님들의 소회	14
<u>교수들의 건강칼럼</u> 한 회 쉽니다	-
<u>소식</u> - 교수회 제106차 월례 대의원회 개회 - 교수회 후임 감사 선출	16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여기 적힌 먹빛이...”

행정학과 강명구

정년퇴임을 맞아 아주동산에서의 지난 30여 년을 회고해 달라는 원고 청탁을 받고 나의 뇌가 이제는 7순을 바라보는 누님을 불러낸 것은 참으로 의외였다. 비록 세 살 반 터울에 지나지 않았지만 한창 크던 시절 남매간 세 살 터울은 손위가 여자인 경우 조숙한 정도로 치자면 대개는 곱하기 3하여, 즉 10여 년 내외의 차이를 나타내기 마련이다. 찌질하고 짓궂었던 남동생이 몰래 훑쳐본 누나의 시집에는 “초원의 빛”이라는 제목 하에 이런 글귀가 적혀있었다. “여기 적힌 먹빛이 희미해질수록/ 당신의 사랑하는 마음 희미해진다면/ 나는 이 먹빛이 마름하는 날/ 당신을 잊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의 말미에는 영국시인 워즈워스(W. Wordsworth) (작) 조 병화 (역)이라고 쓰여 있었다. 아스라하고 달뜬 연모의 정에서 자유롭기 힘든 청소년에게는 참으로 자극적인 글귀였다. 지금 돌아보니 나는 평생 몇 번에 걸쳐 읽을만하면 이 글귀를 떠올리곤 하였다. 오늘 이 글귀를 다시 한 번 떠올리는 연유를 옛 이야기를 짚어가며 적어본다.

첫 번째 해후는 나라가 아직은 어렵고 극장가서 보는 영화가 연중 대단한 행사였던 나의 중학교 3학년 여름 방학시절이었다. 훗날 <잎 속의 검은 잎>이라는 유작을 남긴 시인 기 형도가 아직은 이른 젊은 나이에 영화 관람 중 요절하였던 인사동 낙원상가 할리우드 극장에서 우리 반은 <초원의 빛>이라는 할리우드 영화를 단체 관람하였다. 워렌 비티와 나탈리 우드라는 잘 생긴 두 남녀 배우가 주연한 선남선녀의 풋사랑이야기였는데 극중 실연한 여주인공이 문학수업 시간에 이 시 글귀를 읊고는 울며 뛰쳐 나가 버린다. 대학에 진학하여 나는 이 시가 워즈워스

(Wordsworth)라는 대단한 영국 시인의 작품인 것을 알고는 원문을 접하기 위해 어쩌다 생각이 나면 ‘초원의 빛(Splendour in the grass)’이라는 제목이 있는지 그의 시집을 뒤지곤 하였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내가 이 시의 원문을 제대로 접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 우리 시대의 문학평론에 한 획을 그은 (고) 김윤식 교수가 2000년대 초반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정년퇴임하며 마지막 강의에서 이 시를 읊었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난 후였다. 헌데, 아뵤사, 원문을 찾아

읽어보니 내가 이 시의 제목으로 알고 있었던 “초원의 빛”은 이 시의 한 구절을 차용한 영화 제목에 지나지 않았다. 시는 어린 시절의 순수하고 고귀하였던 영혼을 나이 들어서도 간직하고픈 가슴 절절한 삶의 서사(敍事)였다. 아무리 눈뜨고 까뒤집어도 원문 그 어디에도 (고)조 병화 시인이 번역한 “먹빛”과 “사랑하는 마음”을 찾을 수 없었다. 시인 조병화의 “먹빛”과 “사랑하는 마음”은 아마도 모름지기 영화의 대중적 인기를 염두에 두고 번역을 빙자한(?) (혹은 번역에 의존한) 창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다. 내가 책상 머리맡에 써 붙여놓고 눈길 갈 때마다 한 번씩 훑어보는 원작은 이러하다.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부르는 불멸의 노래 (강 명구 역)

한 때 그토록 찬란했던 광채가
내 눈 앞에서 영원히 사라진들 어떠리
초원의 빛과 꽃의 영광어린 시간을
되돌릴 수 없을지라도
우리 슬퍼하지 말지어다
차라리 뒤에 남겨진 것들로부터 힘을 얻으리니,
변치 않을 본원적 공감으로부터,
고난을 딛고 서는 위로의 마음으로부터,
죽음을 통해 본 신념으로부터,
철인(哲人)의 마음을 키워주는 세월의 흐름으로부터

Ode: Intimations of Immortality from Recollections of Early Childhood (William Wordsworth)

What though the radiance which was once so bright
Be now for ever taken from my sight,
Though nothing can bring back the hour
Of splendor in the grass, of glory in the flower
We will grieve not, rather find
Strength in what remains behind;
In the primal sympathy
Which having been must ever be;
In the soothing thoughts that spring
Out of human suffering;
In the faith that looks through death,
In years that bring the philosophic mind.

지난 해 영국 중부 Lake District에 있는 시인의 집을 찾았었다. 어린 시절 시인이 거닐며 침잠하였을 이슬 맺힌 광활한 초원도 거닐어 보았고 어린 영혼을 취하게 만들었을 계절의 영광이 가득한 그의 정원도 돌아보았다. ‘초원의 빛’과 ‘꽃의 영광’이 선사한 본원적 공감, 위로의 마음, 죽음을 넘어서는 신념, 그리고 통찰의 사색들이 켜켜이 쌓인 만년(晩年)의 고택(古宅)을 느리게, 아주 느리게 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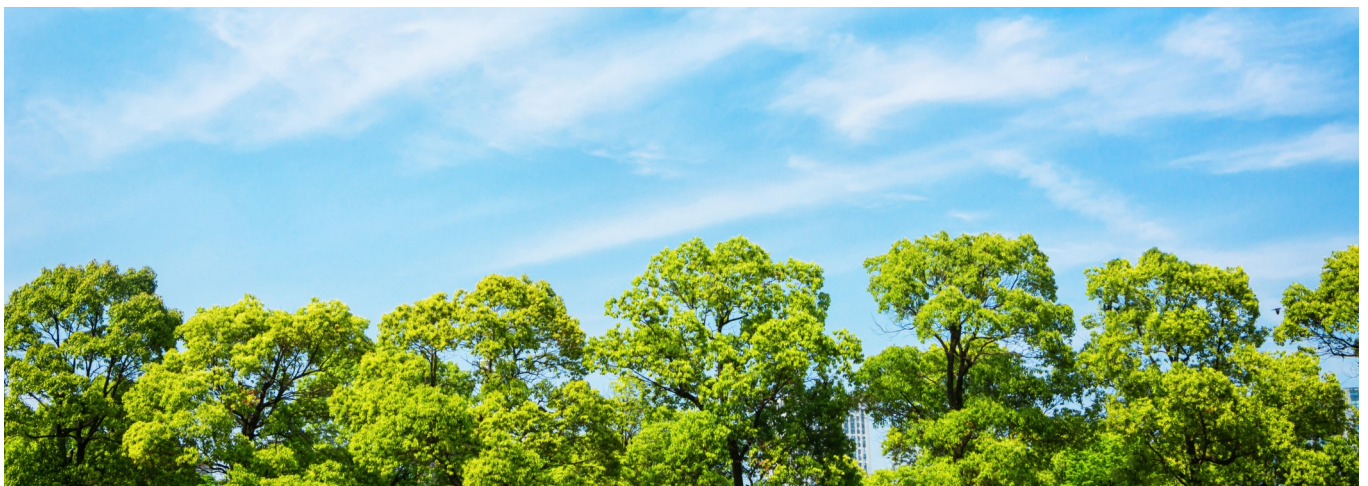
이제 나는 수십 년 먼지가 켜켜이 쌓인 율곡관 521호실로부터 영구히 퇴각한다. 먼지를 헤치고 나니 그곳에 내가 거닐었던 ‘초원의 빛’과 내가 보듬었던 ‘꽃의 영광’ 잔해들이 드문드문 보인다.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진지하였던 국가에 대한, 사회에 대한, 대학에 대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과 삶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의 덩이들. 이것들이 나의 만년에 선사할(것으로 기대하는) 본원적 공감, 통찰의 사색들로 인하여 떠나는 발길이 무겁지만은 않다.

만년의 노추(老醜)로부터 나를 지켜줄 젊은 시절 아주 동산의 선물들을 반추하는 동안 시인의 고택을 나서며 마주한 소개 팜플렛 제목 하나가 나를 붙든다. Tyranny of Trimness. 단정함이라는 이름의 (전체주의적) 횡포. 시인은 ‘초원의 빛’과 ‘꽃의 영광’을 오래도록 음미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본원적 공감을 ‘즐감’하기 위해서는) 획일화의 횡포로부터 탈출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우리네 대학이 처한 사정에 견주자면, 그것이 어느 일간지의 가당찮은 대학 서열 매

기기이건, 교육부의 관료주의적 간섭이건, 연구 점수이건, 정년 보장이건, 이데올로기 이건, 본부로부터의 행정 이메일이건, 그도 아니면 교수 사회 내의 서열매기기이건... 말이다. 이런 단순명료하고 깔끔한 독재들은 발밑에 든든하게 깔아두고 우리는 눈을 들어 순수한 열정이 선물하는 본원적 공감을 올려 보아야할 것이다. 클 대(大) 배울 학(學)으로 이루어진 큰 배움집이 대학의 본령 아니던가! 그래서 내가 읽은 세계 각국 헌법 전문(前文)중 최고의 명문으로 생각하는 스위스 헌법 전문의 한 소절을 방법론으로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오직 자유를 사용하는 자만이 자유로울 수 있다.(Only those who uses freedom remains free)” 넓게는 세상에 대해, 좁게는 내가 속한 대학에 대해 우리는 자유롭게 말해야 할 것이다. 세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학이 무엇인지.

아빌라의 성녀(聖女) 테레사 수녀가 “삶이란 2류 호텔에서 지내는 하룻밤 이상이 못 된다”고 하였을지라도 나는 출근 길 아주대학 표지판이 보이면 드는 푸근함과 안도감에 이렇게 말하고 떠나려나. “여기 적힌 먹빛이 희미해질수록/ 당신의 사랑하는 마음 희미해진다/ 나는 이 먹빛이 마름하는 날/ 당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워(Wordsworth) 선생님, 클래식 주로 듣다가 가끔 트로트도 듣는 게 인생이니 빙자(憑藉)형 표절인사 너그럽게 봐 주셔요.

<탁류청론> 제호(題號)의 작성자가 한 소리 남기며 떠납니다. Adios!



특집

코로나19 탁류청론 좌담회

- 취 지 : 코로나19는 넓게는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좁게는 우리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데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때로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잘못된 정보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작 중요한데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지고 있지 않은 지식과 정보들이 있다. 이에 학내의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통해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
- 참석자 : 김대중(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신승수(의과대학 호흡기내과학교실), 최영화(의과대학 감염내과학교실), 석혜정(정보통신대학 미디어학과)
- 진 행 : 박만규(인문대학 불어문학과)
- 시 간 : 2020년 6월 24일 (수) 17:00~19:00
- 장 소 : 교수회 사무실

내 용

- | | |
|---------------------------|-----------------------------|
| 01 — 2차 대유행은 오는가? | 07 — 공공의대와 일본의 청 승격 |
| 02 — 치료제, 백신은 언제? | 08 — 우리의 의료시스템은 유지될까? |
| 03 — 환자 증가추이와 의료 시스템 | 09 — 여행은 이제 끝났나? |
| 04 — 바이러스 발생의 생태적 원인은? | 10 — 불평등의 심화 |
| 05 — 우리 방역 대책의 성공 요인은? | 11 — 코로나가 가져다준 긍정적 결과는 없는가? |
| 06 — 왜 서양인들은 마스크를 잘 안 쓸까? | |

01 — 2차 대유행은 오는가?

박만규 교수님들 진료와 연구에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세요? 2차 대유행은 언제쯤 올까요?

신승수 아직은 마치 끓기 시작하는 냄비를 뚜껑으로 덮어놓은 것과 같은 그런, 뭔가 최선을 다해 꼭 억누르고는 있는데 그 안에서 서서히 끓아들지 아니면 또 다시 확 늘어날지는 감히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추정이 가능한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행동이나 모임을 할 때 요구되는 원칙들을 철저히 준수해 준다면 지난번과 같은 폭발적인 유행

은 모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글썄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대구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상황이 계속 가는 게 유행의 한 형태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역 사회 감염이 20명에서 5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거리 두기나 방역 같은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폭발적으로 500명, 1000명으로 가는 일은 안 생길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대신에 현재의 상황이 계속 가는 거죠. 오히려 진을 빼는 거죠.

최영화 제 생각에는 2차 대유행이 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만나지 말아야지’, ‘같이 먹지 말아야지’ 등과 같

은 포유류에게 어울리지 않는 긴장감, 규제 등을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옛날엔 겨울이 바이러스가 돌기 좋은 시점이니까 겨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에어컨이라는 게 있어서 실내를 다 밀폐하기 때문에 겨울하고 동일한 조건이 유지되니까 (2차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7~8월에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만규 그런데 동양하고 서양하고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책임지는 자유’, 즉 개인의 책임 하에서 사회적 접촉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권리를 많이 주장하잖아요. 특히 미국은 경제 살리기 명분도 있지만 트럼프는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럽 정부들도 경제를 손상시키기를 싫어 많이 느슨하게 하는 바람에 초기 대응에 실패 했었지요. 특히 네덜란드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이 더욱 심해서 개인의 권리를 더욱 우선시켰죠. 반면에 동양은, 중국은 물론 전체주의 국가라서도 그런 것이긴 하지만, 봉쇄에 개인의 권리를 희생 시켰죠. 한국은 참 특이한 사례인데 봉쇄를 선택하지 않아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 비교적 자율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방역조치를 따르는,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노력했죠. 그러나 제가 최근에 식당 같은 곳에 가보니 깜짝 놀랄 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원칙은 사라지고 너무 풀어진 것 같은 현장을 보았어요. 2차적 유행이 안 올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석혜정 사실 저부터도 용감해지게 되더라고요. 워낙 유행이 된 지 오래되었고, 이게 새로운 일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잘 지키고 있다가도 한 번쯤은 나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레스토랑도 가보고 눈치를 보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위험군에 속하시는 친정어머니도 계시고 어린 아이가 있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이 너무 오래가다 보니까 이제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지키지만 이제 보니 나만 집에 있었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다녔구나’라는.

02 — 치료제, 백신은 언제?

박만규 지금 비관적인 전망을 하건 낙관적인 전망을 하건 간에 많은 분들이 결국 이 사태는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는 종료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언제쯤 개발될까요?

최영화 그게 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우선 치료제라는 건 발생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생기지 않게 주는 건 아니거든요. 또 백신을 개발해도 백신이 우리 일상생활을 옛날로 돌리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RNA 바이러스, 돌연변이도 있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그렇듯이 **100% 예방력이 있는 백신을 만들진 못 할 것**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계속 하게 될 것이란 거죠. 홍역도 가끔씩 위험하잖아요? 한 번 맞아 놓으면 면역이 평생 가는 것이라면 희망이 있지만 RNA 바이러스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백신이 개발이 되어 백 명이 맞더라도 생체와 항체 생성하는 사람들이 70~80% 정도예요. 안티 바이러스가 생기더라도 항구적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소아마비나 홍역을 컨트롤 한 것과는 판관으로 백신이 나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밀집 생활하는 데에는 언제든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을, **일반인들은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사들은 옛날로 돌아가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박만규 RNA 바이러스 특성상 100% 커버할 수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공생하면서 가야 한다고 그러셨는데 특히 이 바이러스가 변이를 많이 하니까 개발을 해도 또 변이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고, 아니다, 기본적인 건 마찬가지로 개발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느 것이 옳은가요?

최영화 백신 개발하는 기초과학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이러스가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것, 자기들이 변이를 잘 안 일으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타겟으로 하여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즉, 잘 변이

하지 않으면서 생존에 필수적인 부분을 타겟팅해서 그런 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박만규 신약 개발 말고 기존 약품을 이용하는 소위 repositionning이 있는데, 예컨대 렘데시비르를 이용하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많이 있던데요? 그렇게 효과가 많이 있지 않을 것이란.

최영화 중증에서만 인정해주죠. 그렇게 일반인들한테 크게 쓸모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03 — 환자 증가추이와 의료 시스템

김대중 결국은 바이러스가 약해지기만을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사실 독감은 유행해도 건디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왜 코로나가 이렇게 문제인가 하면 **그만큼 치명률이 높기 때문인거죠.** 결국 **치명률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영화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데, 그런 시점은 서서히 올 것입니다. 다만 같은 인원이라도 **열흘에 한 명이 발생하는 것과 천일에 한 명이 발생하는 것은 달라서 우리는 후자를 추구**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치료도 못 받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을 테니까요. **이를 위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고, 한 마디로 잡힐 때까지 가늘고 길게 버텨가는 거죠.

신승수 초기에 사망률이 굉장히 높게 보도가 되었던 것이 결국 정확하게 원인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왕좌왕해서 환자는 폭발적으로 생기고 그 폭발적인 환자를 감당하느라 기존의 의료자원이 다 소모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보전적인 치료를 하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순간에 많이 생기는 것과 조금씩 오래 발생하는 것과 의료자원이 감당할 수 있는 차원에서 차이가 있죠.

박만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금 상당히 모범적으로 이번에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반면에 유럽은 의료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되었었고요.

최영화 우리도 대구에선 붕괴가 되었죠. 대구에서는 집에서 죽었잖아요? 그러한 체계가 이런 상태에서 지금은 **코로나 진료에 투입된 인력이 굉장히 적거든요.** 우리 병원도 몇 명 안 되죠.

우리나라 의료원 안에서 계속 막아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소모되는 거거든요. 버티기 어렵죠. 전방 후방의 원활한 교대 없이 **계속 전방 인력만 일을 하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확진자 발생이 적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원인

박만규 우한폐렴이란 말도 있었듯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직접사인은 폐렴인가요?

최영화 원인은 코로나바이러스인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열나고 목 아프고 이런 사람, 폐렴 조금 있는 사람, 폐렴이 엄청 많은 사람, 갑자기 진행해서 죽는 사람 등,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한데 이걸 결정하는 게 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일단은 연령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는데 어떤 면역학적 기저, 또는 유전적 기저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것이죠.

김대중 그래도 죽는 가장 흔한 이유는 폐 아니에요?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

신승수 **호흡부전이 오는 게 제일 직접적인 사인이죠. 그리고 폐에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폐에 그런 병변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안 생기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현재 대략적인 설명은 가능하지만 개별 케이

스를 온전히 신뢰성 있게 예측은 못 합니다.

04 — 바이러스 발생의 생태적 원인은?

박만규 바이러스라는 게 사실 지구 역사 45억 년 중에서 극히 짧은 역사, 즉 일만 년 전 도시문명이 시작하면서부터 동물들에 있던 것이 인간에게 전이 되면서 시작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14세기에 흑사병에서부터 전염병이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에 중남미에 인구 대부분이 사라지게 된 원인이 되었던 천연두 바이러스, 그리고 그전에도 로마제국이 멸망한 것도 장티푸스나 이질 같은 전염병 때문이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잖아요. 요컨대 전염병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예를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21세기 들어와서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30년 주기였건 것이, 21세기 들어와서만 벌써 대여섯 건이 될 정도로 3년 주기가 되었는데, 이렇게 된 원인을 무엇으로 봐야 하나요?

신승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바이러스에 접촉하게 되는 포인트 자체가 자꾸만 늘어난다는 거죠. 인구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 자연을 향해 확장되면서 기존에 거기에 터를 잡고 있던 동식물하고 우리가 어쨌든 원하던 원하지 않든 접촉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각자 그 객체 안에서 나름대로 안정된 생태계를 가지고 살아오던 바이러스를 본의 아니게 사람에게 노출시키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석혜정 네, 문명 발달의 가속화가 이런 것을 오히려 부추기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보면 여객기 폭파보다 바이러스 창궐이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건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걸리게 되는 것 아닌가 조바심 내고 사람을 서로 못 믿고 멀리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최영화 옛날엔 더 했을 거예요. 페스트만 해도 그랬죠. 다 못 들어오게 하고 미워하고, 나병환자만 생각해

도 그랬잖아요? 두려움을 밀어내는 건 인간의 유전자에 새겨진 본능이거든요.

05 — 우리 방역 대책의 성공 요인은?

박만규 우리 방역 대책의 성공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다고 보세요?

최영화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이제는 그냥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으로 줄여야 하나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은경 본부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아직 쫓아갈 수 있다. 숫자는 폭발을 했지만 사실 대구의 신천지라는 한 종교단체 내에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그냥 포기하고 피해 최소화로 넘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그때 판단을 굉장히 잘한 거죠.

박만규 저는 당시에 그렇게 힘든 추적 작업을 끝내 포기하지 않고 밀어부친다는 게 아주 놀라웠어요.

최영화 저도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에서 10만 명이나 되는 (신천지) 명단을 내놓으라 했을 때 저는 속으로 저런 결정을 어떻게 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 유럽에서는 이런 것 안 할 것 같거든요. 우리 민족만의 특성인 것 같아요.

석혜정 약간 민족성이 또 한몫을 했잖아요.

신승수 민족성도 있고, 뭔가 우리나라 국민 자체가 아직은 이렇게 행정적인 통제에 상당히 많이 두려워서 사는구나 하는.

김대중 진단기술이 아주 초창기에 있었던 게 대단히 큰 역할을 한 거죠. PCR 기법이 핵심적인 것 같아요. 트레이싱을 아무리 해도 옥석을 가려줘야 하는데 그걸 바로 테스트 해서 옥석을 가려줬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걸 발빠르게 회사들이 생산해 낼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하죠.

박만규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작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출현을 염려해서 진단법을 준비했었고 출현을 하자마자 바로 키트를 만들었으며 정부는 긴급 사용승인 허가를 해주었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메르스와 사스, 신종플루를 경험했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대비를 잘 할 수 있었던 것도 있지만요. 아무튼 소위 3T, 즉 Test(진단), Tracing(추적), Timing(타이밍)의 3박자가 모두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06 — 왜 서양인들은 마스크를 잘 안 쓸까?

석혜정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참 잘하잖아요.

박만규 그래요. 유럽인들은 마스크 쓰는 것을 매우 싫어하거든요. 그건 마스크라는 단어에 대한 이미지와 관계가 있어요. 원래 마스크는 라틴어 *mascarar*에서 온 말인데 ‘검게 하다’는 뜻이에요. 여성들 마스카라가 같은 어원이에요. 이 ‘검게 하다’에서 ‘가리다’라는 뜻이 나왔어요. 검게 하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가리는 물건을 마스크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반면에 한국어는 달라요. 우리말은 얼굴을 가리는 ‘탈’, ‘가면’, ‘복면’, ‘마스크’라는 단어들이 다 달리 있어요. 영어나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한 단어인 마스크예요. 최초의 시작이 가리는 물건에서 시작했다가 행사용으로 확장되었죠. 그러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보건용의 의미를 추가한 것뿐이에요. 따라서 서양인들에게 마스크는 얼굴을 가리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부정적 이미지가 아주 강해요. 자기의 identity를 가리는 뭣뭣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면 도둑이라든지 테러범이라든지 특히 이슬람 히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가세를 하면서 더욱 더 마스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졌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요인으로 마스크 착용을 꺼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특히 프랑스가 19세기 말에 제일 먼저 신분증을 도입할 때 사진을 붙인 나라거든요. 그때 이제 마스크, 히잡 이런 것을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 역사도 있고 그래서 유럽인들에게는 가리는 물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강했고, 얼굴이나 신체를 가리는 의상을 가진 이슬람에 대한 반감이 그것을 가속화시킨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나는 강하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특히 트럼프는 이러한 심리적 경향의 극단이죠. 자신의 영도력 하에 있는 한국민들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코로나바이러스 자체를 폄하했었죠. 막상 너무 많이 사망하니까 뒤늦게 입장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써도 자기만 안 써요. 그건 나는 강하다는 자의식의 표출이죠. 이처럼 서양인들은 마스크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예의 코드인 것 같아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써야 감염을 안 시키는 예의이다. 이런 게 있어서 마스크 덕분인 것도 상당히 이번에 본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신승수 마스크라는 이름으로 이게 들어와서 거부감이 없는 것이지 만약에 복면이란 이름으로 이게 들어왔다면.

박만규 그렇죠. 이걸 복면이나 가면이란 단어를 썼으면 우리도 부정적이었을텐데 우리는 외래어를 그대로 따로 이것만 마스크로 하니까 오직 보건용이 되는 거죠.

석혜정 그리고 우리는 미세먼지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니 마스크가 친숙한 물건이 되어 있죠.

07 — 공공의대와 일본의 청 승격

박만규 최근 이슈가 두 개가 생긴 것 같은데 하나는 **공공의료대학 인력을 배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최근에는 또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대응책이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중 글쎄요, 별도의 의대를 만들어서 해결될 문

제가 아닐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그런 쪽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지금 **기준에 있는 국립 의대에 TO를 늘려 줘서 그런 인력을 양성해 내도록 하는 게 충분히 좋은 방법일 텐데 왜 굳이 또 하나의 의대를 만들어서 실험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좋은 방법 같지는 않아요.

박만규 일본의 승격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중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관계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영원한 갑이에요. 질병관리본부는 실행하는 기구이고 거기에는 연구를 위한 직원들도 꽤 있지만, 정부 정책을 실행하고 지역 보건소나 어떤 위탁 기관이든지 뭐든지 행하는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주고 하는 게 실행기관인데, 보건복지부는 철저하게 그것을 지시하는 기관으로 군림해 왔어요. 그런데 식약청을 식약처 독립시켜 준 이후에 보건복지부는 굉장히 고통스런 기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 업무적인 협조가 굉장히 잘 안 되거든요. 사실 식품이나 약품에 대해서 관리하는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와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미국은 여전히 지금 식약처가 보건복지부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독립되어 있고 그게 공무원 입장에서는 싫은가 봐요. 질병관리본부를 어떻게 해서든 체계를 잘 갖추자 하면서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이 떨어져 나갈 것에 대한 걱정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긴 헤프닝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여론이 이렇게 크고 하니 떼어 주기는 하지만 자신의 관리 하에 두고 싶은 거예요.

최영화 질병관리본부의 인사권이 질병관리본부에 없고 보건복지부에 있었다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김대중 그나마 메르스를 겪고 나서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올려준 거예요.

인사가 만사

박만규 보건복지부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질병관리본부의 본부장 뿐 아니라 상위직을 의료 전문가가 아

닌 행시 출신의 공무원들로 배정을 하는 등의 인사행정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던데요?

김대중 그렇죠. 그게 꼭 의사냐 비의사냐 또는 의료 쪽이냐 비의료 쪽이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업무 장악의 문제인 거죠. 필요하다면 복지부에 있던 과장을 그 쪽으로 보내고 저기 있던 사람을 언제든지 데려오고.

신승수 그게 실제로 질병관리본부하고 일을 하다보면 그쪽 과장님하고 일을 해서 서로 낮도 익고 업무가 익숙해지면 다음 회의 때는 다른 과장님을 마주쳐요. 이게 질병관리본부 내에서만 도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까지 다 아울러서 돌아요. 복지부에 갔다가 질병관리본부에 와서 일본 일을 좀 익히는 것 같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08 — 우리의 의료시스템은 유지될까?

최영화 들리는 이야기로는 보건복지부하고 친해져야 승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사권이 그 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의 높은 자리를 원하면 복지부에 가서 특별한 자리에 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한다. 그런데 사실 의료체계를 잘 지지해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디테일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소진되는 것이 누구냐는 것이죠. **영원히 의료원에 있는 몇몇 의사의 회생에만 의지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야 하는데 그게 인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원에 있는 모든 의료진이 그만두고 나가겠다, 파업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돌봐야 되는 것, 그런 디테일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형병원은 돈으로 돕든지, 병실로 돕든지 인력으로 돕든지. 그런데 이제 아무도 돕지 않아도 팬 찰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쪽이 아래에서 버티는 의료원 급의 뭔가가 살 수 있도록 해줘야 상급종합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돈으로든 병실로든 사람으로든 지원이 되어서, 전방에서 일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방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전방과 후방을 순환해야 하는데 의료원급의 의료진들은 후방으로 갈 틈새가 없는 거예요. 시급히 그분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계획을 짜고 있지 않으면 가을에 대붕괴든 뭐든 왔을 때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어려울 거예요.

김대중 그런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또 경기도이든 서울이든 지자체와 정부가 약간 미묘한 입장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관할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수원의료원, 안성의료원 등은 경기도 관할에 있고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등은 서울시 관할 하에 있는 것이잖아요. 정부는 전체를 관장하고 있고요. 의료기관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입장과 지자체 입장,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일선에 있는 사람은 어정쩡한 관리·감독을 받는 거죠.

박만규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통제를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양쪽에서 버림받는 경우도 있고요.

김대중 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일들은 마치 언제든지 채투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재나 의료장비나 마스크 같은 물건들은 언제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절대 살 수 없거든요.** 그런데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굉장히 지쳐가고 있다고 호소를 하는데도,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은 그런 문제는 새 인력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인드라면 ‘나중에 닥쳐서 하지 뭐’라고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떠나겠다고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승수 사실 정부나 지자체만 탓할 게 아니라, 같은 의료직 내에서도 태도의 차이가 있어요. 상급종합병원만 해도 실제로 코로나 환자를 대면해서 보는 의료진

이 있고 그것과 무관한 업무를 하는 의료진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만 봐도 정서가 좀 무관심하다고 할까요? 적어도 나의 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 치료에는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스킬이 필요한 것인데 무조건 사람을 투입해서 그것으로 막기만 하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김대중 나는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거기에서 이제 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서로 미움과 갈등.

석혜정 그리고 사실 물리적으로 체력적으로도 소진되고 몰자나 이런 것도 있는데 약간 정신적인 것도 무너져가고 있을 것 같거든요. 말 한마디라도 감사와 그런 것에 대한 표현을 잘 해야 할 텐데 최근에 정치하는 사람 중에서도 말실수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사람마다 자기의 생각과 어떤 자기의 경험과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조언이 다 다르니까 방향이 한곳에 모여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의료진을 보면 제일 안타깝죠.

박만규 그렇습니다. 결국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들에게 경제적인 보상금도 주어져야 하는데, 문제는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지나가서 평상시가 되면 경각심이 다시 풀어져 버리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급하지도 않고 평상시에는 놀고 있는 듯한 조직으로 비치고 거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은 무용한 일인 것 같고 빛도 안 나죠. 그래서 예전에 감염병에 관한 인력은 별로 정치권에서 관심을 안 뒀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질병관리본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오늘에 이른 것은 참 잘한 일인데 이제 수용능력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를 좀 더 늘려야 하는데 결국 돈 문제인 것 같아요. 인력을 늘리려면 재정을 투입해야 하고 그런 국민적인 공감대가 지금은 형성이 되어 있으니 이럴 때 재정을 좀 더 확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연 정치 부채 안에서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지, 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대중 우리가 지금 병원 이야기만 했지만 제 환자 중에는 보건소에 있는 직원도 있어요. 자기는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5개월 동안 행정적으로도 온통 코로나 일에 치여 지내는데 기존의 업무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니까 죽겠다는 거죠. 방역, 검역 이런 것도 거기도 억지로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새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한 번씩 와야 된다고. 보건소를 가보든 병원을 가서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하루 체험이라고 하게 해야 어디에 돈을 쓸지 이런 것을 알죠. 현장을 가봐야 하는 것이죠.

박만규 그런데 대개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은 현장에 가서 인증샷 용 사진을 찍는 게 다죠. 사실 저는 이 난국에서 비교적 편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방역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너무나 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분들은 한도 끝도 없는 일에 치여 사는데 그분들 덕에 저는 오히려 편하게 사는 거죠.

09 — 여행은 이제 끝났나?

박만규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어 하는 여행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엔 숙박 업계도 방역도 해야 되므로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사람이 적게 오니까 결국은 수익구조 때문에 여행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정말 불행하게도 돈 있는 사람만, 그리고 모르는 사람과의 대규모 패키지 상품 보다는 지인들끼리의 소규모 패키지 같은 것이 앞으로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석혜정 교수님이 가상현실 전공을 하시는데 AR, VR을 활용해서 여행지를 체험하는 이런 것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이젠 가는 것이 너무 고위험 고비용이고, 각국 정부도 출장자 말고 단순한 관광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약을 가할 것 같거든요. 감염병이 없다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입국할 수 있다든지 하는 제약들이 심해질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의 여행은 그런 가상 여행 이런 것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부의 양극화가 이것으로 인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만 직접 여행을 즐길 수가 있는. 참 불행한 시나리오인데. 이제는 이러한 기술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석혜정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들에게 대중화가 되어서, 사실 없던 기술은 아닌데 상당히 대중화가 되어서 많이 회자도 되고 있고 하지만 실제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왔어요. 그 이야기는 아직도 뭔가 불편함이 있고, 아직도 현실에서 실제 촉각으로 느끼고 공기로 마시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걸 대체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라도 하는 거죠. 최선이 아니지만 차선을 택하는 정도. 정서적인 것은 일단 몰입이 가능하고 실제로 거기를 보는 느낌은 아니까 어떤 차선택의 선택인 것 같아요. 오히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학교에 나가지 못하면 가상 클래스 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바타를 가지고 교육하고, 실제로 얼마 전에 게임업계 컨퍼런스 하는 것을 보니까 컨퍼런스에 자기 아바타를 가지고 발표도 하고 관객도 있고 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는 기능적으로 가능하고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행은 좀 다른 문제이죠.

박만규 그러니까 오히려 만족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직접 가지 못하니까, 대체제로. 지금 VR업계는 매우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현재 VR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분야는 안전 분야 정도 아닌가요? 안전 훈련을 하려면 화재 등 직접 하려면 위험하고 돈이 많이 드니까 가상 현실로 해서, 그거는 돼요. 또 일부 교육 분야 정도까지는. 그런데 나머지 분야에서는 안 되잖아요? 매스컴에서는 앞으로 전부 VR, AR 시대가 올 것이라고 10년 쯤 큰소리만 치고 실제로 사업화는 안 되고 있어요.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은 제가 보기에 이제는 untact 시대가 왔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가 생겨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승수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은 가상현실로 수용하는데 즐거움은 가상현실로 수용하지는 않으려 한다는 거죠.

김대중 오늘 호주에 사는 이민 간 친구가 앞으로 virtual 시대야. 여행도 virtual로 해. 그래서 나는 그래도 가고 싶다고 답을 썼는데요.

신승수 그런 virtual을 배경으로 하는 문학이며 영화며 유토피아인가요. 다들 디스토피아죠.

박만규 당연히 여행은 직접 해야 하는데 그게 만약에 완전히 차단되었다고 가정을 해보 세요. 지금 벌써 차단된 지가 몇 개월째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2-3년, 4-5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행을 포기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 저는 결국 대체제가 나와서 그거라도 소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대중 여기에서 또 행복을 찾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최영화 여행이 자유화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1988년이에요.

박만규 그렇죠. 얼마 안 되었지만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여행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당연한 듯이 여행을 했으니까요.

석혜정 사실 그런 경제의 흐름이 달라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virtual로 다 한다 하면 상인이며 호텔이며, 지금은 항공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경제의 흐름이 만들어 지는 것 같아요.

최영화 지속가능한 사회의 개념이 아마 좀 더 깊게 논의가 될 거예요.

10 — 불평등의 심화

석혜정 우리가 땅은 좁고 사람은 많아서 주말 같은 때는 예전 같으면 정말 인구 대이동이 일어나는 모습이었는데 요즘은 정말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대형 쇼핑몰에 가 보면 꽤 많더라고요.

박만규 이번에 또 알게 된 것은 쿠팡 같은 물류센터나 콜센터 등에 일하는 분들이 언택트 사회를 지탱해 주기 위해 그 이면의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들이 우리의 언택트 사회를 지탱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것도 참 미안해지더라고요.

최영화 요새는 건강 불평등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도 사망자들을 보면 누가 죽느냐, 백인들이 죽는 것보다는 흑인들이, 그리고 아시아, 이런 사람들이 사망하는 것이고. 우리도 실제로 누가 걸리느냐. 고위층, 부자들은 별로 안 걸리고. 그런 것이 눈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놀이 먹는 사람들?

김대중 그것과 관련하여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데이터예요. 우리가 방역, 치료 영역은 굉장히 5개월 동안 잘했는데 데이터를 잘 수집해서 잘 분석하고, 건강 불평등 문제는 없는지, 또는 주로 어떤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는지, 누가 심각한 케이스인지 이런 것은 사실 계속 분석해서 발표해주고 거기에 맞게 정책방향이 정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지금 너무 아쉬워요.

박만규 예를 들면 어떤 정도의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대중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 사망하느냐, 지역별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예를 들면 코로나 환자 때문에 비코로나 환자가 지금 잘못하면 죽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는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분석해내서 잘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찾아줘야 될 것들이 많은데.

박만규 단지 데이터의 축적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해서 연구하고 활용하는 작업이 지금 안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죠?

김대중 그렇게 되도록 데이터를 지금 잘 수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단계부터도 잘 안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정부가 쥐고 전혀 오픈을 안 하고 있는 건지 못 하고 있는 건지...

신승수 중국은 어쨌든 초기에 그 난리를 겪으면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 외에 그런 자료들을 뒤에서 열심히 수집해서 세척해서 뭔가 의미 있는 자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이 **우리의 모든 힘이 다 환자 보고 뒤통다꺼리 하는 데 소모가 되고 있는 것이죠.**

박만규 그런데 우리에게도 조사나 치료에 여념이 없는 역학조사관이나 의사 옆에서 자료를 입력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군요.

최영화 그런 인력이 평상시에는 할 일이 없어 보이지만, **원래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은 게 그게 바로 인프라예요.**

박만규 그거 명언이네요.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은 게 바로 인프라다!

최영화 평상시에도 놀고 먹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이에 생각을 하며 입력할 자료도 만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딱 환자 보고 방역하고 이런 사람만 딱 세 명 있는 거예요. 통계 처리할 사람, 계속 입력할 사람, 이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내줄 사람. 이런 과정 하나 없이 이 세 명만 있기 때문에 이 세 명은 환자 보는 것으로 끝인 거예요.

박만규 놀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게 인프라인데 대표적인 조직이 군대예요. 전쟁이 나나요? 거의 없어요. 하지만 평소에는 훈련을 하고 어쩌다 전쟁이 나면 투입되는 거죠. 감염병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최영화 그렇죠. 그래서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것을 할 생각을 못 한 것 같아요.

석혜정 시선이 또 그러니까요.

최영화 시선도 그렇고 지금도 감염내과나 호흡기내과 의사가 얼마나 될까 싶어요. 힘들어서 안 할 거예요.

11 — 코로나가 가져다준 긍정적 결과는 없는가?

박만규 코로나가 가져다준 좋은 결과는 없을까요?

신승수 기름 값이 평소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것 같아요. (웃음)

박만규 지난 40년 간 인류가 너무 많은 소비를 했어요. 대량소비사회. 이전의 인류와 전혀 다르게 너무나 많은 지구의 자원, 에너지를 소모한 거죠. 마치 지구에 대해 전혀 걱정도 없고 다음 세대에 어떤 환경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없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환경을 굉장히 많이 파괴했는데 이제 조금 쉬니까 정상화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석혜정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김대중 올 봄 최고의 하늘을 봤죠. 미세먼지도 없고.

신승수 사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어느 만큼이나 우리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나를 거꾸로 느끼는 계기가 되었어요. 과연 이것이 이제 수그러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전까지의 행동을 벗어난 어떤 새로운 에코지향적인 삶을 살 것이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박만규 그런데 분명히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바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 사회를 지배하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그에 따른 거대 자본에 의한 세계의 잠식, 부의 양극화 등이 최근

30-40년 동안 일어난 거잖아요. 이런 패러다임으로는 사회가 오래 지탱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큰 정부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요. 방역 같은 것도 결국 정부의 역할이죠.

석혜정 그런데 모두 바뀌어야 하는데 그 심리와 같아요. 나는 바뀌려고 노력하고 잘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정작 똑같이 그러면 나 혼자 한다고 뭐가 바뀌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대중 협력 모형이 작동할 것이냐,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죠. 지금도 기본소득 이야기도 튀어 나오는데 진짜 다 같이 욕심은 덜 가지면서 다 같이 잘 사는 방향으로 국가도 전 세계도 이렇게 가겠느냐, 그런 화두가 있는 거죠.

박만규 교수님들, 오늘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의대와 병원이 질병 퇴치와 국민 건강 증진에 큰 공헌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담론

정년퇴임을 앞둔 교수님들의 소회

내 인생의 10대뉴스

문화콘텐츠학과 주철환

나의 별난 취미 중 하나는 주기적으로 10대뉴스를 선정하는 일이다. 국제뉴스, 국내뉴스가 아니라 지극히 사사로운 개인뉴스에 불과하다. 이십대부터 지금까지 해왔으니 쌓인 뉴스의 분량이 꽤 될 것 같지만 도합 10개뿐이다. 연(year) 단위가 아니라 생(life) 단위기 때문이다. 오로지 ‘내 인생의 10대뉴스’다 보니 굵직한 뉴스가 나타나면 자잘한 뉴스는 10위권 밖으로 자동 탈락한다. 학생들에게도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 방법을 활용하라고 권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동안 10위 안에 들지 못했는데 이젠 끼워 넣고 싶어진 뉴스가 하나 둘씩 시야에 잡히기 시작한다. 그 중 하나가 청년시절의 아마추어창작곡활동이다. PD시절 ‘모여라 꿈동산’(1983)과 ‘퀴즈 아카데미’(1987)의 주제를 직접 만들었는데 가끔씩 그 노래를 기억하고 심지어 나와 함께 듀엣으로 불러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존재한다는 게 놀랍고 감동적이다.

올해엔 10대뉴스 후보가 두 개 늘었다. 5월에 외동아들이 결혼했고 8월엔 아내와 내가 정년퇴직이다. 누가 심정을 물었는데 숙제와 축제라는 단어가 나란히 떠올랐다. 후련하고 개운하면서 한편으론 아쉬움도 있다. 이제 내가 시간에 맞춰 해야 할 숙제도 없고 나에게 숙제를 제출할 학생도 사라지는 걸까. 아니다. 축제 같은 나날들을 어떻게 보내야할지 계획서를 써야 한다. PD시절의 초심으로 게을러지는 나를 데려가야겠다.

기획안을 쓰려다보니 서서히 내 인생프로그램의 윤곽이 잡힌다. ‘하늘 아래 땅 위에 모두가 친구죠 아무라도 좋아요 꿈동산엔 담장이 없으니까요’(모여라 꿈동산) ‘어린 시절에 꿈을 꾸었지 오 내 친구야’(퀴즈아카데미). 내가 작사 작곡한 두 주제가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꿈과 친구다. 정년을 맞는 심정이 어떠냐고 다시 물으면 나는 심과 정으로 나누어서 답할 참이다. 가급적 심(心)은 동심 쪽으로, 정(情)은 우정 쪽으로 향하고 싶다.

회고 2020

의학과 외과학교실 왕희정

코로나 19로 약 4개월을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시간을 보내며 정년을 준비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학회 운영이 모두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일체의 오프라인 미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진료와 수술시간 이외에 퇴근시간 이후의 생활은 교수실과 서재에서 지내게 되면서 반년 남은 정년을 준비하면서 회고록을 만들고, 간절제 관련 책 한 권을 저술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간이었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어 출판사로 원고를 넘길 무렵에 탁류청론 60호의 책임편집자이신 불어불문학과 박만규 교수님으로부터 정년을 앞둔 회고글을 하나 써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받았다. 나의 평범한 교수생활에 관한 회고글은 생각지도 않았던 터라 며칠을 망설이다 펜을 들었다.

인디언들은 열심히 말을 달리다가 가끔씩 서서 뒤를 돌아보는 전통이 있다고 한다. 이유는 자신의 영혼이 따라오지 못할까봐 돌아본다고 한다. 나 역시 원고 청탁을 받을 때마다 과거를 되돌아본 경험이 몇 번 있다. 늘 내 영혼이 그때 그때 시점에 맞지 않게 내가 무엇에 심취되어 있었던 기억이 난다. 내 혼이 저기 4-5년 전쯤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찾아오는 경험을 하곤 하였다. 이 기회도 역시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라고 생각했다. 오늘은 나 나름의 삶의 지혜를 하나 소개할까 한다.

나는 31년간 의과대학 교수생활을 하면서 심각한 선택을 할 때마다 “除一害, 滅一事”라는 말과 “知止”라는 말을 생각하곤 했다. 유비에게 제갈량이 있었다면, 징기스칸에게는 ‘야율초재’가 있었다.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고 오직 능력만을 보고 인물을 썼던 징기스칸이 한낱 피정복민의 젊은 지식인에 불과했던 야율초재를 그토록 신임했던 이유는 천문, 지리, 수학, 불교, 도교 등 당대 모든 학문을 두루 섭렵한 그의 탁월한 식견 때문이었다. 하늘과 땅과 인간, 그리고, 세상 만물의 이치를 꿰뚫어 봤던 야율초재! 그가 남긴 아주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다. “與一利不若除一害, 生一事

不若滅一事”(하나의 이익을 얻는 것이 하나의 해를 제거함만 못하고, 하나의 일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일을 없애는 것만 못하다.) 스티브잡스가 애플이 망해갈 때에 복귀해서 처음 시도한 것은 새로운 제품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제품을 제거하는 일이었다. 수십 개에 달하던 애플 제품을 전문가용, 일반인용, 최고사양 및 적정사양 등의 단 4가지 상품으로 압축하였다. 그 결과 다 죽어 가던 애플을 살려냈고, 애플은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다. 행복을 원한다면 욕망을 채우기보다 욕심을 제거하는 쪽이 현명하고, 삶이 허전한 것은 무언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비우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앞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견지로 나는 간환자들에게도 보약을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몸에 해로운 음식을 삼가할 것을 강조한다.

회갑과 정년퇴임이라는 것이 나의 일로 다가오고 있을 때 나는 매우 담담한 나 자신을 보고 다소 대견했다. 40-50대에 노, 장자와 공자에 포함된 사상인 ‘멈춤’의 사상에 관한 책을 읽었고 많은 것을 생각한 적이 있다. “큰 지혜는 멈춤을 알고, 작은 지혜는 계략만 안다”라는 것이다. 6순을 몇 년 앞두고,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이제까지 모든 것을 묶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풀어야겠다는 생각했다. 휴일날 공원이나 길거리 쓰레기도 줍고, 소리도 그만 지르고, 집안일도 좀 도와주는 등 작은 일부터 변화를 시도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6순 기념으로 책도 두 권을 집필하였다. “일을 벌리는 것은 여기까지야.” 라는 의미였다. 멈춰야 할 시점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준비를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멈춤은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고독이라는 병’과 ‘영원과 사랑의 대화’ 등의 인생론 수필로 유명하고 친숙한 100세의 현존 철학자 김형식 교수가 4년 전 조선일보에 인터뷰한



아주대학교 교수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율곡관 263호

전 화: 031)219-2240

팩 스: 031)219-1608

전자우편: ajoufaculty@ajou.ac.kr

홈페이지: <http://prof.ajou.ac.kr/prof/>

글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 그 질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만약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느 나이로 가고 싶습니까?”라고 물으니깐 단번에 “65세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답하면서 그 이유를 물으니깐, “젊은 날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때는 생각이 얕았고, 행복이 뭔지 몰랐어요. 20대로 가라고 하면 그 무모한 젊음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김태길, 안병욱 교수들과는 동갑인데다 전공도 같아 매우 친했는데 생전에 이 분들과 ‘우리 인생에서 노른자의 시기가 언제였을까’에 대해 대화한 적이 있어요. 답은 65세에서 75세까지였어요. 그 나이에야 생각이 깊어지고, 행복이 무엇인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거든요.” 라고 하였다. 약간의 용기와 희망이 보였다. 나는 정년 후 2년간 더 학교에 머물며 남은 삶의 행복을 찾아 가는 꿈을 꾸 보고자 한다. 의

사로서도 좋고, 아니어도 좋다.

지금의 아주대학교 간외과가 시작되어 26년을 인도하시고, 이제껏 무사히 순항하게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건강하게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가르쳐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리고, 동고 동락해준 집사람에게 감사하고, 26년간 저와 제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준 아주대학교와 의료원에 감사드리고, 제 정신적, 심적 의지가 되어 준 우리 외과학교실 선, 후배 동료 교수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식

교수회 소식

교수회 제106차 월례 대의원회 개최

7월 3일 금요일 교수회 제106차 월례 대의원회가 율곡관 제1회의실(204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수업 환경 속에서 겪은 문제점, 보완점 등이 논의되었으며 다음 학기 수업 운영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교수회 후임 감사 선출

그동안 교수회 감사로 수고해 주신 최원 교수님께서 다음 학기 연구년을 가시게 됨에 따라 후임 감사 선출을 진행하였으며, 교수회 회칙에 따라 후임 감사 후보를 대의원회에서 추천 받은 후 추천 받은 후보에 대한 선출 투표를 대의원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대의원 총 26명 중 22명의 찬성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전경근 교수님께서 후임 감사로 선출되었으며, 교수회 회칙에 따라 전임 감사의 잔임기간인 내년 2월까지 교수회 감사로 활동하실 예정입니다.



편집위원회: 박만규(편집책임),

박성빈, 윤호섭, 정태선, 최영화